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s of Maternal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 in Kindergarten Children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조복희
박사과정 양연숙
박사과정 김암이
박사과정 장미자
박사과정 곽혜경
박사과정 한유미

Dept. of Child, Family and Housing Studies, Kyunghee Univ.

Professor : Cho, Bok Hee

Doctoral Course : Yang, Yeon Suk

Doctoral Course : Kim, Ah mee

Doctoral Course : Chang, Mi Ja

Doctoral Course : Kwak, Hae Kyung

Doctoral Course : Han, You m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연구방법 | V. 논의 및 결론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maternal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 Fifty-four children aged 5 and 6 years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and videotaped in a strange situation. Children were interviewed in order to asses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 Teachers rate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using modified ISCS(Iowa Social Competency Scale: Preschool For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of maternal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 Children of the secure attachment to mothers were greater social activator, cooperative, alternative solution thought and consequential thought. In contrast, children of insecure attachment to mother were less social activator and cooperative, and more hypersensitive and apprehensiv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related to the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삶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사회 속에서 일생동안 여러 다른 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다. 인간은 타인들과의 대인관계가 만족스럽고 조화로울 때 보다 성숙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지만, 타인들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할 때 성장과 발달은 저해되고 부적응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Lieberman, 1977; Mates, Arend, & Sroufe, 1978).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의 질적 특성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본질, 특성, 그 안에서 기대되는 행동, 그리고 자아를 구성하게 하며, 애착대상과의 관계 내에서 획득한 기대나 태도 그리고 능력은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모자녀 애착 관계의 질적 특성은 아동이 또래나 다른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대인관계는 결국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은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Water, Wipman, & Sroufe, 1979) 아동이 사회 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해 가는데 필수적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유아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집단 및 교육기관 등 보다 확장된 세계를 경험하는 시기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야기되는 문제상황들을 중심으로 유아가 해결 가능한 방안들을 스스로 모색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여 문제해결의 결과를 주세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며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포괄적인 적응 능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유아의 안정적인 애착 성향과 대인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에서는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었던 영아가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됐던 영아보다 유아기 때 낯선 또래나 성인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더 많이 보이고(Sroufe, 1983), 문제해결상황에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자이며 적응을 잘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였다(Matias et al., 1978; 고경애, 1983). 그리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인기가 있고 또래간에 지도자가 되는 경향이 높으며(Waters et al., 1979), 새로운 문제상황과 자유놀이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Lieberman, 1977).

이와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에 대해 거부적이거나 비수용적인 정신적 표상을 갖게 된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불안-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거부당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타인에게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나타냈으며(Londerville & Main, 1981), 특히 6세된 불안-회피아는 문제 상황에서 방어적이고 개인적 실수를 인지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관계에

서 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었다(Cassidy, 1988). 한편, 불안-저항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그들의 비일관적인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인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 또래와의 관계에서 망설이고 소극적인 동시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나타낸다(Sroufe, 1983). 이것은 아동과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에 반영됨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영아기 아동을 중심으로 애착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Main과 Cassidy(1988)에 의해 유아의 애착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관찰도구가 개발되고 Slough와 Greenberg(1990)에 의해 애착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격리불안 테스트(Seperation Anxiety Test)가 개발되면서 유아기 아동의 애착상태를 규명하고 유아기 아동의 애착과 또래수용(김민정, 1990) 및 사회적 능력(양외점, 1994, 이숙희·김숙령, 1996; 홍계옥·최경순, 1996)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인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연구(이경희·최경순, 1992)는 있으나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수단-목적적 대인문제해결사고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분석한 것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유아기 아동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간의 관계를 함께 고찰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관계가 확대되는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이 현재 어머니와 형성하고 있는 애착이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에 반영되는 애착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능력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5, 6세 유치원 남녀 아동 54명(남아 28명, 여아 26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서울 시내 3개 구에 위치한 유치원 8곳에 연구개요와 동의서를 배부한 후 참여 의사를 표시한 어머니와 유아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연령은 60개월에서 75개월까지로서 평균 66.3개월(SD=4.0)이며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37명(6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동아가 7명(13%), 둘째이하가 10명(18.5%)이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상이 39명으로 72.2%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대졸이상자와 고졸자가 26명, 28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관리직과 사무직이 각각 16명(29.6%), 전문직과 생산판매직이 각각 11명(20.4%)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대상 아동의 어머니 중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19명으로 35.2%였다. 가계 월 평균 수입은 약 276만원(SD=118.9)으로 200백만원 미만인 집단이 25.9%,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31.5%,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 1)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

유아의 애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Main과 Cassidy(1988)의 실험절차를 토대로 30분의 격리 후 5분간의 재결합 동안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관찰행동 항목은 홍계옥(1995)이 사

용한 분류 항목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애착행동 측정체계는 안정애착, 불안회피, 불안모순, 불안조정 4개 애착행동유형에 따른 5점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각 애착유형별 행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안정 애착(secure: B): 전반적으로 유아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긴다. 어머니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어머니를 향한 행동이 확실히 따뜻하다.

나. 불안회피(insecure-avoidance: A): 전반적으로 유아는 어머니와 신체상 및 의사소통상의 거리를 두거나 어머니의 출현 및 말을 무시하면서 실험 기간 동안 활동에 지속적으로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 불안모순(insecure-ambivalent: C) : 유아는 어머니에게 친밀성, 의존성, 자신의 미성숙 및 상당한 회피와 함께 슬픔, 공포 및 적대감을 미묘하게 보인다. 어머니에게 웅석을 부리거나 미숙한 행동으로 접촉이나 접근을 추구하거나 애정적으로 기대는 등의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라. 불안조정(insecure-controlling: D): 유아는 어머니를 거부하거나 당혹, 창피를 주는 행동을 한다. 또한 어머니를 조정하려는 행동이나 지나친 명량성을 보이기도 한다.

2)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Pease, Clark & Crease(1979)의 ISCS(Iowa Social Competency Scales-Preschool Form)를 교사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양연숙(199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ISCS는 총 30문항으로 사회적 활동성(social activator), 협력성(cooperation), 과민성(hypersensitivity), 불안정성(apprehension)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이다. 각 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0 \sim .91$ 이었다.

3)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

대안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유아가 어

떤 해결방안을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Spivack (1976)의 ISCS(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를 토대로 박찬옥(1986)이 제작한 대인문제해결 사고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사고, 원인적 사고, 그리고 수단-목적사고를 각각 별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위검사는 상대가 친구, 어머니, 그리고 교사일 때의 세가지 문제상황의 문항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상황에서 친구관계를 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친구를 대상으로한 검사만 실시하였다. 각 하위사고를 묻는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10회까지 반응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반응은 박찬옥(1986)이 분류한 범주에 따라 해결방안과 비해결방안, 열거, 반응으로 구분하였으며, 해결방안에 속하는 반응 수를 합하여 각 하위사고마다 점수화하였다. 채점은 본 연구자들과 1명의 보조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채점자들간의 신뢰도는 채점자간 동의율을 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r = .92$). 본 연구에서 대인문제해결력은 다음과 같은 하위사고로 구성된다.

가. 대안적 해결사고(alternative solution thought):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나의 대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나. 결과예측사고(consequential thought): 수행한 대인적 행동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결과들을 예측하는 능력이다.

다. 원인적 사고(causal thought):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 동기나 원인을 통찰하는 능력이다.

라. 수단목적사고(means-ends thought): 주어진 대안적 목표에 단계적으로 수단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장애를 예상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도달하는 능력이다.

3. 연구절차

1) 본 실험

낮선 상황 실험은 대학의 아동연구실을 이용하여 199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이 실험실은 현재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으로 일방경과 CCD카메라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구대상 유아들에게는 적절한 정도의 생소함을 지닌 장소로 적합하며 관찰과 녹화 상황이 유아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험절차는 어머니와 아동을 지정된 장소에 안내하고 담화를 갖는 제1실험상황 5분,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상황에 익숙해지는 제2실험상황 10분, 유아가 어머니와 격리되는 실험상황 30분, 아동이 어머니와 재결합하는 제4실험상황 5분이었다. 여기서 아동이 어머니와의 격리후 재결합시 보여주는 반응이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 대인문제해결사고는 낯선 상황을 마친 후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 획득되었으며, 아동의 사회성발달은 개별 아동의 담임교사로부터 평정되었다.

2) 관찰자료 분석

애착행동은 예비관찰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만든 관찰행동 항목을 기준으로 두 분석자가 격리 후 재결합 5분 동안 유아가 나타내는 애착행동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5초 단위로 분석하여 4개 행동유형에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애착측정체계는 안정 체계, 불안-회피 체계, 불안-모순 체계, 불안-조정체계로 분류되며 여기에 혼자놀이와 중립행동이 첨가되었다. 혼자놀이는 아동과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아동이 놀이에 열중하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기에 속하며 중립행동은 위의 5가지 행동에 속하지 않고 모-자간의 상호작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를 근거로 4유형의 애착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가장 점수가 높은 유형의 점수 체계를 중심으로 분류하되, 불안 모순형이나 불안 조정형은 다른 유형의 점수 체계에서 다소 높더라도 3점 이상인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관찰의 신뢰도를 위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2-3회 반복 관찰하였으며 불일치하는 경우 함께 재관찰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관찰자간 일치도는 전체적으로 .80으로, 안정애착행동은 .83, 불

안애착행동은 .78이었고, 애착유형분류에서는 .92로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과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애착유형 분류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은 안정애착형이 28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불안애착형이 26명으로 48.1%이었다. 불안애착형 중에서는 불안회피형이 25.9%, 불안모순형이 16.7%, 불안조정형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성별×안정·불안정 두 애착 집단일 때, $\chi^2=0.69$, $df=1$; 성별×네 애착유형일 때, $\chi^2=5.22$, $df=3$), 성별에 따른 애착행동, 사회적 능력, 대인문제해결력간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가 없었다. 다만,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 변인인 협력성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협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45$, $p<.001$).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협력성의 경우에만 유아의 성별에 따라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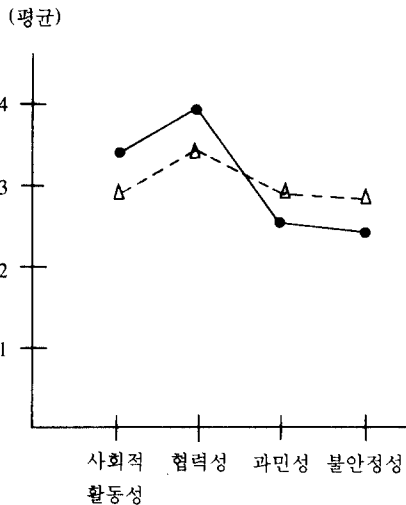
<표 1>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면, 안정애착아는 불안애착아보다 사회적 활동성,

〈표 1〉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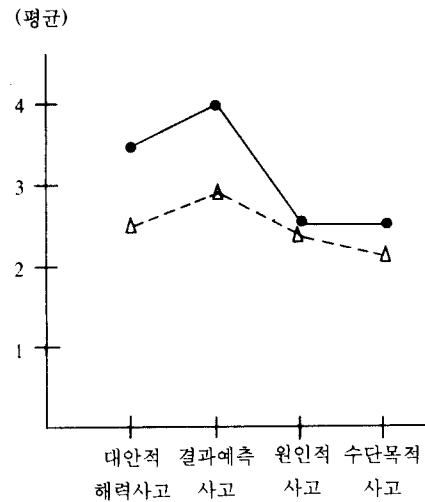
변 인	안정애착형 (N=28)		불안애착형 (N=26)		t
	Mean	SD	Mean	SD	
사회적능력					
사회적활동성	3.41	.60	2.93	.65	2.85**
협력성	3.97	.60	3.48	.63	2.91**
과민성	2.57	.85	2.96	.91	-1.62
불안정성	2.55	.80	2.87	.78	-1.45
대인문제해결력					
대안적해결사고	3.43	1.60	2.42	1.42	2.45*
결과예측사고	3.89	1.75	2.85	1.43	2.41*
원인적사고	2.46	.92	2.38	1.30	0.26
수단목적사고	2.46	1.40	2.08	1.38	1.02

* $p < .05$ ** $p < .01$

●—● 안정애착아
 △---△ 불안애착아



〈그림 1〉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능력 비교



〈그림 2〉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문제해결력 비교

협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불안애착아가 과민성, 불안정성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인문제해결력에 있어서, 안정애착아는 불안애

착아에 비해 대인문제해결력의 네 하위사고 영역의 평균이 높았으나 이중 대안적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안정애착아가 불안애착아보다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 능력이 발달하였고, 특히 사회적 활동성과 협력성 그리고 대안적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의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회적 능력 하위변인 협력성의 경우 남아와 여아의 안정애착과 불안애착집단에서의 협력성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협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여아의 경우에는 안정애착형과 불안 애착형간에 협력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안정애착형인 남아의 협력성의 평균이 3.70(SD=.54) 불안애착형 여아의 협력성의 평균 3.93(SD=.39)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남아의 경우 애착유형에 관계없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선생님의 요구에 대한 수용이 여아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과 애착유형에 따른 협력성 비교

변 인	안정애착형			불안애착형			
	Mean	SD	t	Mean	SD	t	
유아의 성	남아	3.70	.54	-2.40*	3.16	.57	-4.12***
	여아	4.20	.56		3.93	.39	
변 인	남아			여아			
	Mean	SD	t	Mean	SD	t	
애착유형	안정애착형	3.70	.54	2.59**	4.20	.56	1.47
	불안애착형	3.16	.57		3.93	.39	

* p < .05 ** p < .01 *** p < .001

성별과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협력성을 살펴보면, 여아가 안정애착형이거나 불안애착형이거나 동일 애착유형의 남아보다 협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에 안정애착형은 불안애착형보다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간에는 상관이 있었다. 유아가 안

<표 3> 유아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간의 상관관계

변 인	애 착 행 동			
	안정 애착	불안 회피	불안 모순	불안 조정
사회적능력				
사회적활동성	.32**	-.16	-.32**	.02
협력성	.34**	-.29*	-.20	.08
과민성	-.04	.20	.04	.26*
불안정성	-.05	.05	.23	.27*
대인문제해결력				
대안적해결사고	.30*	-.10	-.38**	.11
결과예측사고	.29*	-.17	-.19	-.05
원인적사고	-.08	.05	-.20	-.01
수단목적사고	.11	-.13	-.08	.04

* p < .05 ** p < .01

정애착 행동을 나타낼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과 협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불안애착행동 중 불안회피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유아는 또래와의 협력성, 불안모순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유아는 사회적 활동성을 낮게 평가받았다. 한편, 불안조정행동을 보이는 유아일수록 과민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과 대인문제해결력간에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대안적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의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불안정한 불안모순행동을 보이는 유아일수록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해결사고의 방법이 적었다.

한편, 유아의 성에 따라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인 협력성과 애착행동간의 를 살펴보면, 남아나 여아 모두 안정애착 행동을 높게 나타낼수록 또래 관계에서 협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26, p<.05; r=.42, p<.01$). 그러나 불안애착 행동에서는 남아의 경우 불안회피 행동을 보일수록($r=-.49, p<.001$), 여아의 경우 불안모순 행동을 보일수록 협력성이 낮았다($r=-.37, p<.01$). 안정애착행동은 남녀 유아 모두의 협력성과 정적관계를 나타냈으나 불안애착행동에 있어 낮은 협력성과 관련된 행동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남아는 어머니와 재결합시 신체상 및 의사소통 상의 거리를 두거나 어머니의 접촉을 무시하는 불안회피행동을 보일수록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수용의 정도가 낮았고, 여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친밀성, 의존성, 미성숙, 상당한 회피 등 비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불안모순행동이 높게 나타날수록 협력성이 낮았다.

2.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간의 관련성은 <표 4>와 같다.

대안적해결사고는 사회적 활동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결과예측사고는 협력성과 정적 상관이, 불안정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수단목적사고는 협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원인적 사고는 사회적 능력 변인과 상관이 없었다. 즉, 대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내는 유아일수록 사회적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수행한 대인적 행동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결과들을 많이 예측할수록 또래와의 협력성이 높고, 반면 불안정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주어진 대인적 목표에 단계적으로 수단을 사용하여 장애를 예상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도달하는 수단목적사고에서 높은 반응을 보인 유아는 협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인 협력성과 대인문제해결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대인문제해결력 하위변인과 협력성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아의 경우 결과예측사고($r=.39, p<.01$)와 수단목적사고($r=.25, p<.05$)와 협력성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남아는 대인문제해결력과 또래와의 협력성간에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여아는 결과예측사고와 수단목적사고 능력이 높을수록 협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간의 상관관계

대인문제해결력	사 회 적 능 령			
	사회적 활동성	협력성	과민성	불안정성
대안적해결사고	.27*	.10	-.05	.22
결과예측사고	.17	.28*	.02	-.25*
원인적사고	.01	.07	.11	-.19
수단목적사고	-.04	.26*	.06	.07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재 어머니와 형성하고 있는 애착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능력에 있어, 애착유형은 사회적 활동성과 협력성에 의미 있는 차를 보였는데, 안정애착아가 불안애착아보다 사회적 활동성과 협력성이 높았다. 반면, 과민성과 불안정성은 불안애착아가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이것은 유아기 안정애착과 사회적 능력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Cohn, 1990; Matas et al., 1978; 이숙희 · 김숙령, 1996; 홍계옥 · 최경순, 1996)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유아가 현재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의 질이 또래나 다른 타인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대인문제해결력에 있어, 애착유형은 대인간 문제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안정애착아인 경우 불안애착아동에 비해 갈등상황에서 보다 많은 해결방안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행한 대안적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새로운 문제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Lieberman, 1977)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애착행동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간에 의미 있는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안정애착행동은 사회적 활동성 및 협력성 그리고 대안적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안정 · 불안 애착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에 대해 안정된 애착행동을 보이는 유아일수록 또래와의 놀이를 주도하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또래 및 성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문제상황에서 대안적해결사고와 결과예측

사고의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아의 불안애착행동은 사회적 활동성, 협력성 및 대안적해결사고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과민성, 불안정성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에 대해 불안애착 행동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또래 및 성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능력이 낮은 반면 과민성과 불안정성이 높았으며, 문제상황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사고하는 대안적 해결사고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회피행동을 높게 보인 유아는 또래 및 성인에 대한 협력성이 낮았으며, 불안모순행동을 높게 보인 유아는 사회적 활동성이 낮고 갈등상황에서 보다 적은 해결방안을 지녔으며, 불안조정행동을 높게 보인 유아는 과민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의 질이 유아의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한다.

한편, 불안회피행동과 불안모순행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불안조정행동은 호혜적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과 관련되었다. 이것은 직관적 표현이나 내면과 일치된 행동보다는 간접적 · 소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 문화적 배경 안에서 거부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불안조정적 행동이 또래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과민하여 화를 잘 내거나 불안해하여,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특성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불안애착행동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부적절한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고 있으며, 불안애착 행동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애착행동 유형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이러한 행동성향이 아동의 제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문제상황에 직면할 때 다양한 대안적 해결사고를 해내는 유아일수록 사회

적 활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보다 많이 예측할수록 협력성이 높고 불안정성이 낮았다. 또한 주어진 대인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목적사고 능력이 뛰어난 유아일수록 협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 수단의 수가 많은 유아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한 Spivak과 그 동료들(1976)의 연구나 이경희·최경순(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인문제해결력이 사회적 적응능력으로서 사회적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애착이 안정될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과 협력성이 발달하였으며,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적해결사고와 결과예측사고 능력이 뛰어났다. 반면 애착이 불안정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인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안의 수를 다양하게 생각해 내는 유아일수록 사회적 능력 중 사회적 활동성과 협력성이 높고 불안정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형성하는 애착관계의 질이 아동발달의 중요한 발달 특성 중의 하나인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바람직한 아동발달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유아기 사회적 능력과 대인문제해결사고간의 관계가 규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애착행동,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Cohn, 1990; Park & Water, 1989; Turner, 1991; 박찬옥, 1987; 이경희·최경순, 1992; 이숙희·김숙령, 1996; 홍계옥, 1995)은 하나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아직 일관성있는 해석이나 결론을 얻을 수 없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5-6세 유아 때 측정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간의 관련성을 밝혔을 뿐 아동기 초기에 형성한 애착의 지속적인 영향력이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요인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부모자녀간 애착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아동의 제 발달, 즉 인지·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들이 긍정적으로 문제해결력을 습득하고, 또래와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상호작용 기술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민정(1990). 유치원 유아들의 애착유형에 따른 또래수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박찬옥(1987).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4) 양연숙(1995).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양외점(1994). 유아의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이경희·최경순(1992).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83-95.
- 7) 이숙희·김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8)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9) 홍계옥 · 최경순(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10)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 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11)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12) Lieberman, A. F.(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peers: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13) Londerville, S., & Main, M.(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14) Main, M., & Cassidy, J.(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15) Matas, L., & Arend, R., & Sroufe, L.(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16) Park, A. K., & Waters, E.(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s. *Child Development*, 60, 1076-1081.
- 17) Slough, N. M., & Greenberg, M. T.(1990). Five-year-olds'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from parents: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and other. In I. Bretherton & M. W. Watson(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8, 67-8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18) Spivack, G., Platt, J., & Shure, M. B.(1976).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A guide to research and interven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19) Sroufe, A. L.(1983). Individual patterns of adapta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In M. Perlmutter(Ed.),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 20) Turner, P. J.(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 21) Water, F., Wippman, J., & Sroufe, L. A.(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